

# 어명소 제2차관, “해외건설 패키지 진출에 역량 총결집 ”

## - 22일 해외건설과 방산, 스마트팜 분야 MOU 체결식 참석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2일(수)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활성화를 위한 「해외건설, 방산, 스마트팜 분야 MOU 체결식」에 참석하였다.

○ 이 자리에는 어명소 차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신범철 차관,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,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기업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\*하여 주요 수출 산업 간 협력의 장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.

\* (해외건설) 대우·이수·롯데건설, 코오롱글로벌, 유신, HJ중공업 등  
(스마트팜) 스마트팜산업협회, 이수화학, DStLD, 비바엔에스, 넥스트온 등  
(방산) 방위산업진흥회, SNI다이내믹스, 쉬플리코리아 등

□ 이날 세 부처의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, 해외건설협회는 방위산업진흥회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각 분야와의 협력 기반을 다졌고,

○ 이어서, 각 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산업 수출전략 등 정보를 공유하고 패키지 진출 확대방안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혔다.

□ 어 차관은 “중전의 단순한 EPC 공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과의 패키지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”이라며,

○ “해외건설, 방산, 스마트팜 분야를 대표하는 세 단체가 앞장서서 산업 간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, 패키지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, 어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도 작년 출범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기업들의 패키지 진출을 앞장서서 도와드리겠다”며,
- “오늘 체결한 MOU가 대한민국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, 함께 열리는 세미나에서 산업간 구체적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2023. 3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